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3rd year Nursing Students

Kang, Hyun-Lim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eyword : student, Core Basic Nursing Skills,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Lee, Yeong-Ran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Research Method
- III. Study result
- IV. Discussion
- V. Conclusion
- Referenc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3rd year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tudy explores the essence of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upperclassmen mentors in their 3rd year through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 The result of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3rd year nursing students revealed that the major phenomenon was "wanting to be helpful," and that the causal condition for this phenomenon to occur was "support." It was also revealed that "boosting confidence" and "a reliable fence" were the contextual condition and the mediating condition that influenced working/interactive strategies, and that "doing one's part" and "forming relationships" were the process of working/interactive strategies. Further, "psychological burden" was the contextual conditions that influenced the major phenomenon, and "wanting to be helpful" towards junior students and professors was the major phenomenon in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were revealed to be "lingering regret," "self-development," and "practical mentoring." **Results:** This study establishes a substantial theory by describing the process of mentoring guidance experi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3rd year nursing students. Also, based on this,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the management of effective mentoring programs and core basic nursing skills for instructing students.

Received : 31 August, 2015.

Revised : 01-30 September, 2015.

Accepted : 16 October, 2015.

† Corresponding author : Kang, Hyun-Lim, 54538, 514 Iksandaero Iksan-city Jeonbuk,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Tel : +82-63-840-1417 HP : +82-10-2791-3894

Fax : +82-63-840-1319 E-Mail : kang1813@hanmail.net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

강 현임(姜賢林)
이 영란(李穎瓏)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중 심 어 : 학생,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요약

목적: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질적연구방법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3학년 선배 멘토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결과:**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힘이 되고 싶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인과적 조건은 '지원함'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자신감을 북돋움', '든든한 울타리'로 이를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과정은 '내 몫을 해냄', '관계 맺기'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심적 부담', '걱정거리'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이러한 맥락적 조건은 후배들과 교수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남아있는 아쉬움', '스스로 성장함', '실질적인 멘토링'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과정의 의미체계와 실제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핵심기본간호술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투고일자 : 2015. 08. 31.
심사기간 : 2015. 09. 04.-09. 30.
게재확정일 : 2015. 10. 16.

교신저자 : 강현임, 570-75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el : +82-63-840-1417 HP : +82-10-2791-3894
Fax : +82-63-840-1319 E-Mail : kang1813@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대상자 및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 환경 또한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되어가고 있고, 환자를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간호해야 하는 간호사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면서,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최소한의 표준화된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Klein & Fowles, 2009). 이러한 의료현장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이론과 임상실습 교육 시 핵심적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핵심기본간호술기 항목 프로토콜 및 평가채점표를 개발하였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기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가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2). 이는 국내 간호학과의 신설과 증설에 따른 병원 실습지 부족, 실습현장의 지도와 감독의 질 저하, 열악한 실습 기자재 등의 문제로 졸업간호사들의 기본간호수행능력의 표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대한간호협회, 2013). 뿐만 아니라 20가지의 핵심기본간호술기는 간호교육기관의 인증평가항목으로 정하고 통합실습교육 등으로 학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마다 20가지의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지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임상실습에 임해야 하는 3학년으로 진급하는 2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수행 능력 강화 및 현장실습 적응을 위한 일환으로, 간호사의 감독 하에 간호학생이 임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핵심기본간호술기 5개를 선정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기 지도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 3학년 간호학생 42명이 선·후배 멘토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멘토(Mentor)’는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을 의미

하는데(Zachary, 2009), 멘토링은 멘토(mentor)로 불리는 사람이 참여자인 멘티(mentee)의 지식 기술 습득, 개인의 성장, 대인관계 개발을 위한 후원과 보살핌,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Shea, 1995),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룹멘토링(group mentoring)으로 운영하였다. 그룹멘토링(group mentoring)은 멘토 한 명이 여러 명의 멘티를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그룹집근으로 심리적·정서적인 유대를 촉진하여, 개별멘토링에 비해 시간과 개인적 능력으로 인한 멘토의 소진 가능성이 줄어들어, 여러 명의 멘토들이 서로 역할 분담하여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에는 좋은 대안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Shawn, Alexis & Otis, 2003).

그러나 많은 임상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위해 멘토링이 아닌 프리셉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리셉터 제도는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와 1:1로 짝을 이루어 구체적으로 간호업무 훈련을 시키는 제도로서, 신규간호사는 프리셉터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숙련된 간호수행능력을 배우게 되며, 병동의 낮은 구조와 분위기에 보다 쉽게 적응하게 된다(김세연, 2005). 이 때 프리셉터는 신규간호사의 역할모델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원조자로서 격려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김민정, 2007). 그러나 임상현장과 달리 학교 환경에서는 프리셉터로 교육을 운영하기에 훈련된 개인 지도자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행능력 또한 인증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셉터로 간호학생 교육을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4학년으로 진급을 앞둔 3학년 학생 중에 수행능력이 뛰어난 간호학생을 선발하여 멘토링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수행역량자신감(소애영, 서길희, 심주은, 김민관, 박희주, 안지호, 오유정, 김예진, 전예빈, 2015; 최동원,

2014), 학습경험 후 수행자신감(한애경, 조동숙, 원종순, 2014), 실습만족도와 수행자신감(김아린, 2012; 조미영, 2014) 등이 있었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황은정, 이명근, 서순식, 오상청, 2008; 김지연, 정소연, 2010)가 있었다. 그러나 선배 간호학생이 후배 간호학생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멘토링으로 운영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선·후배 멘토링 경험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명으로 짝지어진 선배 멘토가 5개의 핵심술기를 분담하여 16-18명의 후배 멘티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멘토링을 운영한 경험과정과 그 의미체계를 기술하여 실제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핵심기본간호술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배 멘토가 후배 멘티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멘토링한 경험과정과 그 의미체계를 기술하여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질문은 '후배 간호학생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후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이론을 구축하고 학생지도에 위한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핵심기본간호술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자 참여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I도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3학년 간호학생으로 2학년 후배 멘티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멘토링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심층면접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후 동의서를 받았으며, 비밀 유지와 익명성 및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멘토링 기간은 2014년 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5일간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22세 8명, 23세 2명, 26세 1명으로 총 11명 이었으며, 종교는 원불교 3명, 천주교, 2명, 기독교 1명, 무교 5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도서상품권을 증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하였다. 1차면담에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2명의 연구자가 각각 2회의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1차면담 후 분석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조용한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였으며, 시간은 1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후배에게 시행한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은 어떠한가?"로 시작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로 옮겨 썼고, 이를 USB에 저장하여 문서화시킨 후 그 내용을 다음 면담계획에 반영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지속적 비교를 통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필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추출된 내용과 비슷한 현상에 속하는 것들을 모아 범주화하였다.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일련의 절차 즉 상황, 현상, 상황적 맥락,작용/

상호 작용전략, 결과를 포함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들을 정렬하고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써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후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론을 발전시켰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참여자들에게 면담기록 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분석내용을 평가받아 수정 작업을 거쳤다.

III. 연구결과

1. 근거자료의 범주화

1) 지원함

참여자들은 지도교수가 후배들의 핵심기본간호술기 지도를 추천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한 평가를 하신 교수님에 대해 고맙고, 그러한 평가를 받은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다. 또한 지도교수님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를 지원했다. 후배 멘티를 지도하면서 다시 한 번 핵심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를 지도 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교수님이 해볼래? 권유하셨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교수님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저는 좋았어요.”

“그냥 교수님들을 좀 더 도와드릴까 싶어서 그런 마음

도 있었고.”

“학생으로서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고. 이런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고.”

“저도 다시 한 번 배워보고 싶었고, 저도 모자란 부분을 실습해보려면 도구가 있어야 했는데 제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오면 지도 같이 해볼 수 있잖아요.”

2) 심적 부담

참여자들은 막상 지원을 했지만 직접 가르치는 것은 처음해 보는 일이라,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지 난감해했다. 자신을 추천해준 교수님의 믿음과 후배보다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부담감을 느꼈다. 자신의 지식이 1년 후배와 다를 바가 없고, 자신이 뭘 할 수 있으며, 후배들 앞에서 실수할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후배들이 나이 차이가 적어서 지도하는 선배를 무시하거나, 잘못 배워서 시험을 못 볼 정도로 잘 따라오지 못할까 걱정을 했다. 막상 지도를 해보니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후배들이 사소한 것도 몰라서 우리도 저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임상실습에서 실수해서 타 학교 학생이 업신여길까 하며, 실습 나갈 후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했다.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저희가 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맞는지 좀 틀리면 어떡하지.”

“제가 교수님 입장이 되어서 가르치라고 하니깐. 부담도 너무 되고 어떻게 해야 아무래도 실습을 갔다 왔고, 교수님이 전적으로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할 순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고, 좀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 학년 차인데 내가 이 애들이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기본간호 실습을 했던 애들이니까 저

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집중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말을 다 믿고 있나? 이 눈빛이 나를 따라오는 눈빛인가 하는 거요. 좀 기분 좋음과 두려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선배이긴 해도 교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풀어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좀 산만하지 않을까 했어요.”

“만약에 내가 말실수를 하면은 애들이 시험 볼 때 정말 틀릴까봐 그것도 정말 걱정이 됐고,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저희랑 같이 실습했던 친구들을 4학년 때 실습도 나오니까 그 00대학교 친구들이 물론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또 좀 어리게 보고 막 대할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힘이 되고 싶음

참여자들은 후배들에게 먼저 경험한 임상실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고 싶고, 이론과 임상 차이, 복장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같은 학생 입장에서 지도했다. 임상 실습에 나간 후배들이 칭찬받길 바랐고, 잘못하면 학교망신이라고 생각 했다. 멘토링이 끝난 지금도 후배들이 잘하고 있나 걱정하면서 후배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며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했다.

“최근까지 실습 나갔던 입장으로서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주의해야 되는 점이나 좀 공부해갈 것이나 아니면 병원 위치 같은 거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교수님이 가르쳐주시지 못한 실습 나가서의 상황 같은 거는 잘 알려줄 수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거 주사기를 잡을 때, 이렇게 하

면 편하게 내관을 뽑을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을 가까이 알려줄 수 있죠.”

“머리를 툰다운 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묶으셔야 합니다. 귀걸이 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고”

“저희 학교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실습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칭찬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가서 잘 못할까봐. 못하면 좀 학교 망신이라고 해야 될까? 학교 망신당하는 거 싫어요.”

4) 자신감을 복돋음

참여자들은 후배를 모습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경험을 더듬어 보면서 1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 후배들 앞에선 좀 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용모를 점검하고 고운 말을 쓰면서 후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복돋운다.

“나도 저랬나 싶어가지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못 찌르고 그랬거든요.”

“학년의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 했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 가지라도 더 안다는 게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냥 똑 같은 실습복을 입어도 걸어나올 때 뭔가 좀 더 힘이 들어갔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지만 그래도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투를 조심하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좀 더 단정하게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하고. 얼굴 화장, 깔끔한 모양 유니폼 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스스로 멋지다 했어요.”

5) 든든한 울타리

참여자들은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를 하

면서 교수님 수고를 알게 되고, 후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교수님도 자신들을 볼 때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몰랐던 다른 친구들을 더 사귀게 되고,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평소에는 후배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멘토링에서 잘 따르는 후배 멘티에게 고맙고, 예쁘고, 뿌듯함을 느낀다. 스승과 동기, 선·후배와의 돈독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교수님들이 너무 수고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가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애플에 조금 배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배울 때도 교수님들이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다보면 배일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베이니까 되게 속상한 거예요. 교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거요.”

“다 같이 봐주잖아요. 저도 봐주고 친구들도 봐주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하나를 놓쳤어요. 친구가 슬쩍 지적해줘요.”

“다른 반 친구들이랑 같이해서 다른 반 친구들도 알게 되고.”

“후배들이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명, 한명 마지막에 정리 할 때 바쁘는데,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갈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잘 가르친 느낌도 들고 뭔가 저를 잘 믿고 따라왔다는 느낌도 들고”

6) 내 몫을 해냄

후배 멘티들을 지도하기 위해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대비해 책을 찾아보면서 지도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기 바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의 성향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잘 가르치는 요령이 생겼다. 자기 지도 스타일을 찾으면서 스

스로 능숙해지며, 자신만의 틀을 잡아가면서 제 몫을 툭툭히 해냈다.

“피하주사에 대한 이론적인 거랑, 핵심술기 다 찾아보고, 프로토콜도 제가 모르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외우게 되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 선행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를 했어요.”

“첫 시간은 후배들이 이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싶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르게 해보고, 세 번째 시간에 또 다르게 해보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빠른 아이가 있고, 좀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출석체크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이제 후배들이 하는 거 보고 했는데, 내가 배웠을 때 교수님께 배웠을 때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은 제 스스로 바꿔서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고”

7) 관계 맺기

선배 멘토들은 책을 봐도 모르는 것은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동기들과 의기투합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도 몰랐던 후배 멘티에게 인사를 받고, 서로 얼굴을 익히면서 선배 멘토에게 고마워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선·후배 멘토링은 단순히 멘토의 지도 경험이 아니라 교수님이나 동기, 후배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시간이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 교수님들께 물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행학습이랑 동영상 프로토콜도 써서 나눠주고, 처음에 오티를 할 때 중요한 거 집어 주고, 마지막에 3번째 들어오는 팀은 시험도 봐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을 앞에서 들었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죠. 뿌듯했죠. 내가 열심히 가르쳐준 만큼 애네들이. 갑자기 눈물 나려고...”

“옛날에는 후배인지 선배인지? 다 후배이긴 하지만 몇학년 후배인지. 지금은 얼굴이 익숙하니까 서로 알아보죠.”

8) 남아 있는 아쉬움

멘토들은 운영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모두 실습유니폼을 입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구별이 안되는 것과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배 멘티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과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몇몇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다. 선배 멘토의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예의 없는 행동과 나이 많은 후배에게 같은 학생 입장이라 잘못에 대해 제약을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서 후배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가르쳐줄 사람인지 모르고.”

“봉사시간이 없어서요. 그거라도 해줬으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병동 가서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좀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할 걸! 잘할 수 있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잘 알려줄 걸.”

“나는 후배들을 위해 봉사해 주러 온 건데. 그냥 시험 보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버려서 당황스럽고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더 어렸고, 그 분도 제가 선배지만 어린 걸 아니까. 그래서 말도 잘 안들을 것 같고.”

9) 스스로 성장함

참여자들은 가르치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지식이 나의 것이 되면서 취업 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학교에서 잘 배웠음을 알게 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음을 알게 된다.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멘토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제는 나도 많이 해봐서 자신감이 붙어서요. 병원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 잘 배워 왔구나. 그것도 느껴져요. 잘 지나왔더구나 이런 것들.”

10) 실질적인 멘토링

멘토링을 통해 핵심기본술기 외에도 선배 멘토의 임상실습 경험이 후배 멘티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5일이라는 기간에 스스로 선·후배의 정을 느끼며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실질적인 멘토링이 되었다고 했다. 선배 멘토들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가르치는 것이 간호학과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기회도 좋고, 다른 기회도 좋으니까 예전엔 뭔가 멘토링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욕심이 있다면 계속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표 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지원함	믿고 맡김	자신을 믿어줘서 고마움 믿음을 주는 자신이 뿌듯함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교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후배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다시 핵심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맥락적 조건	심적 부담	처음 해보는 일	직접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낌 수업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지 난감함
		믿음에 대한 부담감	교수님의 믿음에 대한 부담, 우리끼리 해야 하는 부담 후배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걱정	1년 차이라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생각 스스로 뭘 할 수 있을지 걱정, 실수할까 걱정
		잘 따라올까 걱정	후배들이 잘 따라올까 걱정, 시험을 못 볼까 걱정 나이 차이가 적어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 공부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걱정, 잘못 배울까 걱정
		실습 나갈 후배들을 걱정	사소한 것도 몰라 걱정, 임상실습 안 해 본 티가 남 타 학교 학생이 업신여길까 걱정 임상에서 실수할까 걱정, 우리 때와 다름
중심 현상	힘이 되고 싶음	실질적인 도움을 줌	실습경험을 생생하게 조언, 같은 눈높이에 맞춰 지도함 나만의 노하우를 가르쳐줌, 중요한 것을 세세히 보줌 학생다운 외모와 복장에 대해 조언함 이론과 임상의 차이를 이야기해 줌
		초록은 동색	후배들이 칭찬받길 기대함, 잘못하면 학교랑신 잘하고 있나 걱정함, 후배에 대한 사랑이 커짐 후배라 책임감을 느낌
중재적 조건	자신감을 복돋음	스스로를 돌아봄	자신의 경험을 더듬어 봄, 1년 차이가 큼을 느낌 후배를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음	용모를 점검함 고운 말을 씀
		스승의 그들을 알게 됨	교수님 수고를 알게 됨 교수님 마음이 후배를 보는 내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듦
	든든함 울타리	동기가 힘이 되어줌	다른 친구를 알게 됨 동료가 도와줌
		유대감으로 마음 트기	잘 따라줘서 고마움, 잘 따라서 예쁘게 보임 잘 따라줘서 뿌듯함
		지도방법을 모색함	핵심술기 프로토콜을 공부함 질문에 대비해 책을 찾아보며 공부함
작용/ 상호작용 전략	내 몫을 해냄	요령이 생김	시간이 지날수록 잘 가르치는 요령이 생김 성향에 따라 지도해야 함, 효과적인 방법을 찾음
		틀을 잡음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함, 자기스타일을 찾음 스스로 능숙해짐
	관계 맺기	스승을 찾아다님	담당 교수님께 물어가며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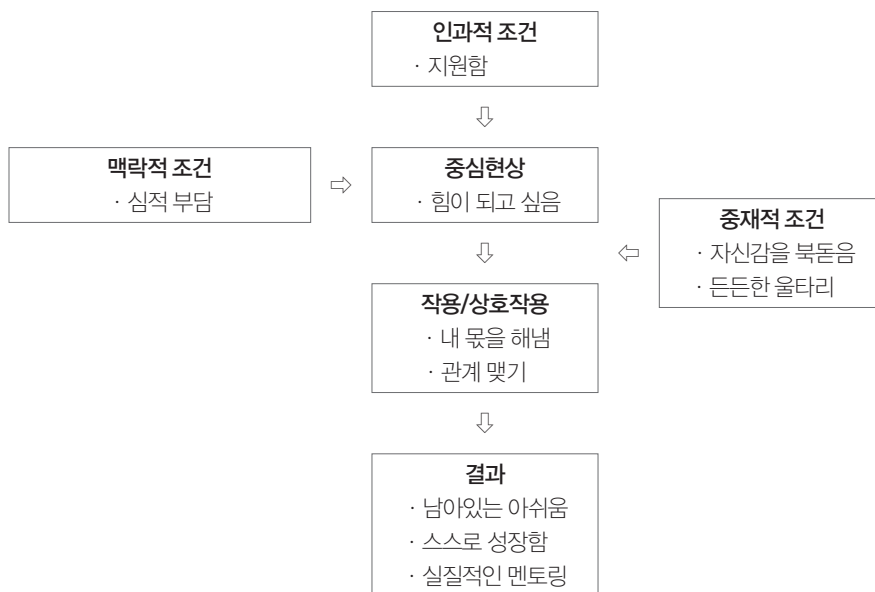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작용/ 상호작용 전략	관계 맺기	동기와 의기투합	친구들과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친구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배움 친구들과 역할분담을 함
		믿고 의지함	서로에게 관심이 생김, 인사를 하는 관계 선배대접을 해줌, 서로 연락을 함
결과	남아 있는 아쉬움	운영에 아쉬움이 생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구별이 안됨 봉사점수가 없음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	좀 더 잘해줄걸 후회가 생김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생김
	존중을 못 받은 기억	마음을 몰라줘 섭섭함, 같은 학생 입장이라 제약을 못함 나이 많은 후배는 말이 먹히지 않음	
	스스로 성장함	내 지식이 됨	가르치면서 배움, 가르치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음
		자신감이 생김	임상에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잘 배웠음을 알게 됨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됨,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실질적인 멘토링	실질적인 멘토링의 장	선배의 경험이 후배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실질적인 멘토링이 됨, 전통이 되었으면 함	

2.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과 과정을 통합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

링 지도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심현상은 ‘힘이 되고 싶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인과적 조건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자신의 의지인 ‘지원함’으로, 또 맥락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자신감

〈표 2〉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을 복돋음’, ‘튼튼한 울타리’로 이를 위한 작용/상호 작용 전략과정은 ‘내 몫을 해냄’, ‘관계 맺기’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심적 부담’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맥락적 조건들 속에서 후배들과 교수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남아있는 아쉬움’, ‘스스로 성장함’, ‘실질적인 멘토링’ 등으로 나타났다(표 2).

IV. 논의

본 연구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3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확인하고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멘토는 역할 모델의 제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하며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로 구성할 수 있다(전미진, 2002).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핵심기본간호술기 지도 멘토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다. 멘토링은 멘티와 멘토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막상 지원을 했지만 멘토로서의 역할과 능력, 멘티들의 처해진 역량을 확인하고 심적 부담감 속에서 멘토링을 운영하면서 멘티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다른 멘토와 멘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을 경험하는(Herrera, 2002)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멘토들은 동료와 후배, 교수와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멘토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스스로 성장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관(2012)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질적 성장 요소 중에 하나를 ‘나에 대한 만족’이라 했는데, 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멘티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외모와 말투를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복돋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에게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멘토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황은정 외, 2008). 따라서 학생 지도 시에 자존감이 낮은 학생에게 멘토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멘토들은 처음에는 시키는 것만 하다가 스스로 공부를 하며 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자기만의 지도 스타일을 찾으며 능숙해지는 경험을 했다. 김기영(2014)의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의 경험 연구에서도 교육활동이 멘토들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좌절감을 느꼈지만,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법의 다양성을 도입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문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으로 선배 멘토는 후배 멘티에게 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을 생생하게 조언하거나, 학생다운 외모와 복장에 대해 조언을 하고, 후배들이 잘하고 칭찬 받기를 기대하며 멘토링을 운영했다. 흔히 멘토는 경력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Kiraz와 Yildirim의 연구(2007)에서도 멘토링에 경험이 중요하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했다. 상호존중, 이해, 동감을 동반한 심리사회적인 관계가 전공에 더 몰입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이는 멘토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도가 아닌 정서적인 이해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Kirk와 Olinger(2003)는 좋은 멘토란 기술적인 전문가뿐 아니라 생활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목적과 관심을 알고자 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

실습은 간호학생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학생들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느끼며, 신체·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자존감 저하, 부담감, 두려움, 무력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정선, 선정주, 김현숙, 2009; 박정원, 하나선, 2003). 본 연구에서 선배멘토는 핵심기본간호술기 지도 외에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임상실습에 대한 조언이 후배들에게 임상실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배멘티들은 선배멘토들이 전해준 간접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줄이고, 임상실습 부서의 환경 및 실습내용을 간접 경험하게 하여 임상실습 적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멘토들은 이처럼 임상실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며,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이 학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길 희망하였다. 멘토링 효과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멘티들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생활 적응성이 향상하였으며(김지웅, 2008; 강연지, 2007), 전공에 대한 열정, 학습효과(박세미, 2011) 및 태도와 자기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김지웅, 2008)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은 타 전공 학생에 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학과적응을 힘들어 하는 학생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질적인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목적과 관심을 수용하는 장이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과 취업멘토링 등 대학생들 자신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저학년 간호학생들의 학과적응 및 전공만족도 등을 높이기 위해 간호학과 특색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

론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배 간호학생이 후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간호이론을 도출하여 학생지도에 유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핵심기본간호술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I도시에 소재한 일개 보건대학 3학년 간호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의 자료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을 하였고, 패러다임을 통해 축코딩하고,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들의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79개의 개념, 27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3학년 선배 간호학생이 2학년 후배 간호학생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지도하는 인과적 조건은 '지원함'으로 나타났고, 맥락적 조건은 '심적부담'으로 도출되었다. 3학년 선배 간호학생이 2학년 후배 간호학생에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지도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자신감을 북돋움', '든든한 울타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후배 멘티를 잘 지도하기 위해 '내 몫을 해냄', '관계 맺기'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적 행위를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맥락적 조건들 속에서 후배들과 교수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멘토링을 지도한 선배 멘토들은 '남아 있는 아쉬움', '스스로 성장함', '실질적인 멘토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배가 2학년 후배를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기 멘토링 지도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원리를 확립하여 학생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핵심기본간호술기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선배 멘토로 선정하였

으나 향후 후배 멘티의 지도를 받은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간호학과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단행본

Zachary, L. J., 『멘토와 멘티』, 스마트비즈니스, 2009.

● 논문류

강연지, 『선·후배간 멘토링이 무용전공 대학생의 학과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대석사논문, 2007.

김기영,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의 '동반성장'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지』 7(1), 다문화교육연구회, 2014.

김민정, 『프리셉터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역할수행도』, 경북대 석사논문, 2007.

김세연, 『신규간호사와 프리셉터에 의한 프리셉터 업무수행평가』, 카톨릭대 석사논문, 2005.

김지웅, 「대학생들의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활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전공 학생들의 Mentor에 대한 신뢰에 따른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외식경영학회지』 11(2), 외식경영학회, 2008.

김정선·선정주·김현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체험」, 『질적연구』 10(1), 질적연구학회, 2009.

박세미, 『대학생들의 무용 멘토링이 무용열정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논문, 2011.

박정원·하나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2(1), 정신간호학회, 2003.

윤대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의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12.

조미영,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지』 21(3),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 2014.

전미진, 『학교부적응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2.

최동원,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정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한국간호교육학회, 2014.

한애경·조동숙·원종순,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수행 자신감 조사연구」,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지』 21(2),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 2014.

황은정·이명근·서순식·오상청,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기업교육연구학회지』 10(2), 기업교육연구, 2008.

● 기타자료

김아린, 「일 대학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 실습 후 핵심기본간호 실습 만족도, 수행 자신감 및 수행능력 간의 관계」,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12(10).

김지연·정소연, 「청소년 멘토링 활동 효과 측정」,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2010.

대한간호협회, 「교육기관현황」, http://www.koreanurse.or.kr:444/resources/nur_edu.php

소애영·서길희·심주은·김민관·박희주·안지호·오유정·김예진·전예빈,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역량 자신감」,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2015(5).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http://kabone.or.kr/kabon03/index03_02.php.

2012.

● 외국문헌

Herrera, C., Gale, L. Y., & Vang, Z., 『Group mentoring』, Private Ventures, 2002.

Kiraz, E., & Yildirim, S., 「Enthusiasm vs. experience in mentoring: A comparison of Turkish novice and experienced teachers in fulfilling supervisory rol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8(2), 2007.

Kirk, J. J., & Olinger, J., 「From traditional to virtual mentoring」, 『ED』, 2003.

Klein, C. J., & Fowles, E. R., 「An investigation of nursing competence and the competence outcomes performance assessment curricular approach: Senior students' self-reported percep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2), 2009.

Shawn, O., Alexis, H., & Otis, Williams, III., 「Therapeutic Group-Mentoring with Africa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5(2), 2003.

Shea, G. F. 『Mentoring How to develop successful mentor behavior』, Crisp Learning, 1995.

Strauss, A., &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8.